

트와이스 신곡, 이 일본 드라마 주제가로 선정

트와이스(사진)가 10월 하순 현지서 발표할 신곡 'STAY BY MY SIDE' 는 같은 달 6일부터 TV아사히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심야의 유감천만 사랑도감' 의 주제가로 발탁됐다. 신곡 'STAY BY MY SIDE' 는 사랑에 빠진 여성이라면 누구든 생각하는, 조금은 애절한 마음을 가사로 표현한 업템포 곡이다. 트와이스의 노래가 일본 드라마 주제가로 선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드라마 원작인 동명의 만화 작품은 일본에서 전자판 다운로드수를 포함해 200만부를 돌파했고 특히 20~30대 여성이 공감하는 내용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한편 트와이스는 지난 12일 공개한 일본 첫 정규앨범 'BDZ' 로 오리콘 위클리 앨범차트 1위, 오리콘 데일리 앨범차트서 발매 일주일간 '불박이' 정상을 지키는 등 인기몰이중이다. 또 데뷔 베스트 앨범 '#TWICE' 에 이어 'BDZ' 로 오리콘 디지털 앨범 위클리 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했고 타이틀곡 'BDZ' 는 '웨이크 미 업' 에 이어 라인뮤직 위클리 차트서도 1위에 오르는 위용을 과시했다.

아울러 19일 발표된 빌보드 재팬의 'Hot Albums', 'Download Albums', 'Top Albums Sales'



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3관왕을 차지했다.

트와이스는 'BDZ' 발매와 함께 'TWICE 1st ARENA TOUR 2018 "BDZ"' 라는 타이틀로 현지 4개 도시, 9회 공연의 첫 아레나 투어도 연다. 지난 29일과 30일 치바 마쿠하리 이벤트를 시작으로 10월 2일과 3일 아이치 일본 가이시홀, 12일~14일 효고 고베 월드 기념홀, 16일과 17일 도쿄 무사시노무라 종합 스포츠 프라자 메인 아레나에서 열리는 이번 투어는 일찌감치 전석 매진되며 트와이스의 강력한 '티켓 파워' 를 입증하고 있다.

소녀시대 유리, 솔로가수로 변신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유리(29·본명 권유리·사진)가 데뷔 11년 만에 솔로가수로서 오는 10월4일 첫 앨범 '더 퍼스트 신' (The First Scene)을 을 발표한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빠져가' (Into You)를 포함해 모두 6곡이 담겼다.



유리는 2007년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로 데뷔해 드라마 '패션왕', '동네의 영웅', '피고인' 을 통해 연기자로 변신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10월 11일부터는 MBC 예능 드라마 '대장금이 보고 있다' 에서 여주인공 '복승아' 로 활약한다. '대장금이 보고 있다' 는 '대장금의 후손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라는 상상에서 시작된 예능 드라마로, 먹는

게 낙이고 먹기 위해 사는 삼남매의 먹부림 드라마다.

최근 유리는 소녀시대 소그룹(유닛) 소녀시대-Oh!GG의 신곡 '몰랐니' 에서 매력적인 보컬을 뽑냈고 DJ레이든과 EDM(일렉트로닉 댄스뮤직) 페스티벌인 '울트라 마이애미 2018'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유리의 솔로 활동 소식이 전해지자, 유리에 앞서 솔로 활동을 펼친 멤버들에 대한 관심 역시 뜨겁다. 소녀시대 멤버 중 정식으로 첫 솔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태연이다. 특히 태연은 첫 솔로 앨범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향후 소녀시대 멤버들의 솔로 가능성을 열어줬다.

방탄소년단, 유엔총회 무대 올라



방탄소년단(BTS)이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서 유엔총회 무대에 섰다. (사진)

BTS는 24일 낮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Generation unlimited)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끄는 '청년(Youth) 2030' 프로그램 중 교육부문 파트너십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였다. 기성세대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권한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구테흐스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 리더 RM(본명 김남준· 24)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소개한 뒤 "별을 보면서 꿈꾸지 말고 실천해보자고 생각했다. 내 몸의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생각했다."면서 "저에게는 음악이라는 도피처가 있었다. 그 작은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RM은 "실수하고 단점이 있지만 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목소리를 내달라. 여러분의 스토리를 얘기해달라."고 전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유니세프와 손잡고 세계 아동·청소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시작한 '러브 마이셀프' (LOVE MYSELF) 캠페인을 알리고 있다.

MY BABY. MY STYLE.

gemgem

Passionate about your baby?

SO ARE WE!

Clothing/ Toys/ Gear/ Room/ Feeding/ Gift/ Organic

www.egemgem.com

T: 949.529.0715